

## 나스닥, 실적 부진과 매파적인 각국 중앙은행 정책 발표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FOMC 이후 되돌림이 지속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어도비(-10.19%)가 부진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로 급락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 전환. 여기에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ECB 또한 비록 금리는 동결했으나, PEPP의 내년 3월 종료를 확인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스닥의 하락이 뚜렷한 모습. 결국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보와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동성 확대 요인(다우 -0.08%, 나스닥 -2.47%, S&P500 -0.87%, 러셀2000 -1.95%)

###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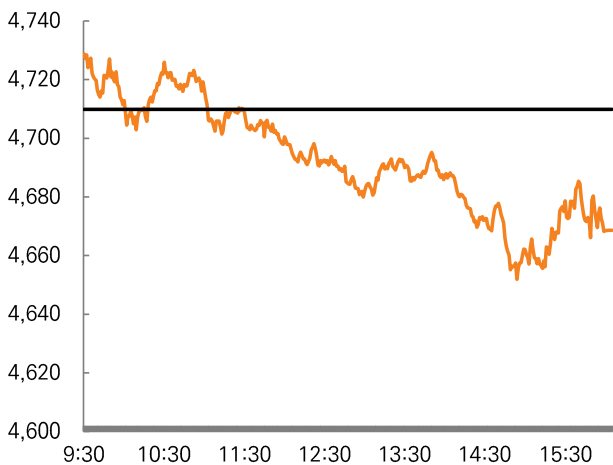
•어도비(-10.19%)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로 급락. 이 여파로 MS(-2.91%), 세일즈포스(-2.66%), 서비스나우(-5.88%)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동반 하락. 스카이웍(-8.47%), 브로드컴(-3.00%)은 애플(-3.93%)이 무선칩을 자체 개발 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하락. 애플 또한 최근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제품을 기반으로 목표가격을 제시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 어펄 홀딩스(-10.58%)는 후불결제 시시스템 조사 소식에 급락. 리비안(-5.33%)은 실적 발표 앞두고 부진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시간 외 4% 하락 중

###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60%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6%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더불어 미국 소매판매에 이어 산업생산 또한 예상을 하회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다만, 최근 미 증시의 장 중 변동성 확대는 금요일 있을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 또한 한 몫 했다는 점에서 다음주 변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06.41	+0.57	상해종합	3,675.02	+0.75
KOSDAQ	1,007.86	+0.43	홍콩항생	23,475.50	+0.23
DOW	35,897.64	-0.08	베트남	1,476.61	+0.08
NASDAQ	15,180.43	-2.47	유로스톡스 50	4,201.87	+1.01
S&P 500	4,668.67	-0.87	영국	7,260.61	+1.25
캐나다	20,739.78	-0.14	독일	15,636.40	+1.03
일본	29,066.32	+2.13	프랑스	7,005.07	+1.1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하고 코로나 대응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내년 3월 종료를 시사하는 등 예상에 부합된 결과를 내놓음. 그런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 전망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도 2% 이상을 유지 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물론 결국에는 목표치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우려를 완화 시키는 발언을 했으나, 높은 인플레이 지속 가능성을 시사. 특히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 했으나,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호한 주장을 하고 이번 조치가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일부 매파적인 발언 또한 이어짐

영국의 BOE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 최근 IMF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영란은행에 경고하는 등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터라 영향은 제한. 다만 최근 약 5% 수준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4월 6%를 기록한 뒤 하반기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 완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지속적인 매파적 행보의 가능성을 높임

미 연준이 FOMC를 통해 내년 금리인상 3회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생각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보여준 가운데 ECB와 BOE 또한 매파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상승을 이어왔던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각국 중앙은행 발표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려오는 약세를 보였으며, 미 국채 금리는 잠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 특히 오미크론에 따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대부분 국가의 국채 금리는 하락

한편, 국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하락하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오늘 기술주 하락과 금융주 상승은 금리 요인 보다는 연준을 비롯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어도비(-10.19%)가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군 중심의 매물 출회를 촉발한 점도 나스닥 낙폭 확대 요인 중 하나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완화를 이유로 되돌림이 유입되기도 했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로 유동성 축소 이슈에 민감한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으로는 향후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다만, 금요일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기술주 낙폭 확대

어도비(-10.19%)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드런스 발표로 급락. 이 여파로 MS(-2.91%), 세일즈포스(-2.66%), 서비스나우(-5.88%)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동반 하락. 에어비앤비(-6.99%)는 밸류 부담과 예약 추세 둔화 등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되자 하락. 스카이웍(-8.47%), 브로드컴(-3.00%)은 애플(-3.93%)이 무선칩을 사내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퀄컴(-5.88%), 쿼코(-3.39%) 등도 동반 하락. 애플 또한 일부에서 최근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제품을 기반으로 목표가격을 제시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 엔비디아(-6.80%), AMD(-5.37%)를 비롯해 전일 장 마감 앞두고 급등한 종목군은 매파적인 각국 중앙은행 정책 우려로 하락. 어픽 홀딩스(-10.58%)는 후불결제 시스템 조사 소식에 급락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6.74%)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강세. 이 영향으로 IBM(+2.29%), DXC테크(+2.51%) 정보기술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들도 동반 상승. AT&T(+6.95%)는 밸류에이션 대비 낮은 주가를 이유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강세. 버라이즌(+4.35%) 등 여타 통신회사들도 동반 상승. 테슬라(-5.03%)는 머스크의 매도 지속 등으로 하락. 리비안(-5.33%)은 장 마감 실적 발표 앞두고 부진. 장 마감 후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시간 외 4% 하락 중. 페덱스(-0.94%)는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과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로 시간 외 7% 상승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95	대형 가치주 ETF (IVE)	+0.61
에너지섹터 ETF (OIH)	+0.43	중형 가치주 ETF (IWS)	-0.40
소매업체 ETF (XLY)	-2.21	소형 가치주 ETF (IWN)	-1.09
온라인소매 ETF (EBIZ)	-2.54	대형 성장주 ETF (VUG)	-2.26
금융섹터 ETF (XLF)	+1.26	중형 성장주 ETF (IWP)	-1.97
기술섹터 ETF (XLK)	-2.83	소형 성장주 ETF (IWO)	-2.9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2	배당주 ETF (DVY)	+0.99
클라우드 ETF (CLOU)	-2.27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09
미국 리츠 ETF (VNQ)	-0.04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55
주택건설업체 ETF (XHB)	-1.63	미국 국채 ETF (IEF)	+0.29
바이오섹터 ETF (IBB)	-0.99	하이일드 ETF (JNK)	-0.11
헬스케어 ETF (XLV)	+0.59	물가연동채 ETF (TIP)	+0.21
곡물 ETF (DBA)	+0.3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0
반도체 ETF (SMH)	-4.35	모멘텀 ETF (MTUM)	-1.58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금융	654.23	+1.21	+1.13	-0.61
소재	555.81	+1.04	+1.19	-0.28
헬스케어	1,614.64	+0.58	+3.53	+3.71
에너지	417.61	+0.55	-2.28	-3.10
필수소비재	793.55	+0.54	+4.95	+5.10
유틸리티	358.96	+0.49	+3.35	+5.43
부동산	312.59	+0.40	+2.43	+3.32
산업재	878.92	+0.05	-0.69	-2.28
커뮤니케이션	264.73	-0.58	-0.40	-4.19
경기소비재	1,552.64	-2.23	-3.37	-5.51
IT	2,963.95	-2.86	-1.42	+0.3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실적 개선 종목 중심으로 반발 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60%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6.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6%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FOMC 이후 강한 되돌림으로 강세를 보인 미 증시에 힘입어 상승 출발. 연준의 긴축은 한국 등 신흥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이어지자 장 후반 재차 상승폭 확대하며 마감. 특히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종목 중심으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미 증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특히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변화할 경우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 더불어 미국 소매판매에 이어 산업생산 또한 예상을 하회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다만, 최근 미 증시의 장 중 변동성 확대는 금요일 있을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 또한 한 몫 했다는 점에서 다음주 변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한편, 한국 증시의 하반기 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견고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의 경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변화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산업생산 둔화

미국 11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mom +1.7%)나 예상(mom +0.7%)을 하회한 전월 대비 0.5% 증가에 그쳤으나, 공장 가동률은 지난달 발표(76.5%)를 상회한 76.8%로 발표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달 발표(18.8만 건)나 예상(20만 건)을 상회한 20.6만 건으로 발표. 4주 평균은 21만 8,750건에서 20만 3,750건으로 감소돼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줌

미국 11월 주택착공건수는 지난달 발표(150.2만 건)나 예상(156.3만 건)을 상회한 167.9만 건을 기록. 허가건수도 지난달 발표(165.3만 건)나 예상(165.5만 건)을 상회한 171.2만 건으로 발표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지난달 발표(39.0)나 예상(28.8)을 하회한 15.4로 발표.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47.4에서 13.7로 크게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수치가 둔화

미국 12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58.3)는 물론 시장 예상(58.5)을 하회한 57.8로 발표되었고 서비스업 PMI 또한 지난달 발표(58.0)나 예상(58.2)을 하회한 57.5로 발표. IHS는 임금, 운송비용 등이 증가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비용 증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



## 구리 가격, 페루 광산 폐쇄 등으로 상승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이슈가 확산되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전일에 이어 미국 재고 감소 이슈가 영향을 주며 상승. 더 나아가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갔지만 경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발표한 점은 전반적인 심리 개선 기대를 높임

달러화는 ECB와 BOE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보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다만, 주요 선진국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행보는 신흥국 환율의 약세를 초래.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1%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남아공 란드화, 러시아 루블화등도 약세.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브라질 헤알화 등은 강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 멕시코 페소화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국채금리는 ECB와 BOE의 매파적인 행보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주요 경제지표 부진, 미국 나스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 전환. 다만, 연말을 앞두고 채권 시장 리밸런싱 및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국채 선물 변동성 확대 또한 방향성 제한 요인.

금은 달러 약세 및 각국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주요 이벤트 종료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페루 지역 구리 광산 폐쇄 소식과 중국 철강 수요 회복 기대도 상승 요인 중 하나. 곡물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에 건조할 날씨로 곡물 수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과 달러 약세로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14%, 철근은 1.25%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38	+2.13	+2.03	Dollar Index	95.971	-0.56	-0.31
브렌트유	75.02	+1.54	+0.81	EUR/USD	1.1333	+0.39	+0.35
천연가스	3.78	-0.58	-0.89	USD/JPY	113.69	-0.31	+0.18
금	1,798.20	+1.91	+1.21	GBP/USD	1.3327	+0.49	+0.80
은	22.49	+4.36	+2.14	USD/CHF	0.9193	-0.63	-0.47
알루미늄	2,667.00	+2.70	+1.54	AUD/USD	0.7183	+0.20	+0.48
전기동	9,507.50	+3.35	-0.28	USD/CAD	1.2778	-0.44	+0.51
아연	3,422.00	+4.60	+3.38	RUB/USD	0.0136	-0.15	0.00
옥수수	591.25	+0.94	-0.08	USD/BRL	5.6873	+0.04	+1.92
밀	770.50	+1.92	-0.80	USD/CNH	6.3793	+0.08	-0.01
대두	1,278.25	+1.03	+0.47	USD/KRW	1,183.90	-0.11	+0.80
커피	236.85	-0.19	-1.39	USD/KRW NDF1M	1,186.50	+0.15	+0.6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28	-2.90	-7.15	스페인	0.385	+3.80	+1.10
한국	2.145	-2.00	-3.70	포르투갈	0.297	+3.90	-1.60
일본	0.047	-0.60	0.00	그리스	1.192	-2.00	-16.70
독일	-0.348	+1.20	+0.50	이탈리아	0.973	+5.60	-2.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